

外国籍市民のための生活情報誌

Living information magazine for a foreign family register citizen

Information Fujimino

2024年9月

No. **265**

隔月発行

発行／埼玉県指定・認定NPO法人 ふじみの国際交流センター

ふじみの国際交流センターを
卒業した子どもたち

Children who had been grown
up using
Fujimino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Center

从ふじみの国際交流中心毕业的
孩子们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를 졸업한
어린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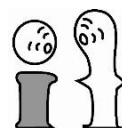
Những trẻ đã tốt nghiệp
trung tâm giao lưu quốc tế
Fujimino

Crianças formadas no
Fujimino Kokusai Koryu
Center

Mga batang lumaki na at
napangalagaan ng
Fujimino International



この情報誌は、丘 亜蘭 様のご寄付により発行しています





Children who had been grown up using Fujimino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Center

Every Saturday, many children with foreign roots come to FICEC's International Children's Club. We asked some of the children who have studied and spent time at the children's club, where is like their second school, about their memories.

This text was taken from FICEC's journal "Hello Friends."

U.M. [Pakistan], May 2020

I was 16 years old when I graduated from junior high school in Pakistan and came to Japan. I think Japan is a safe and clean country. Unlike Pakistan, I didn't see adults fighting in the streets in Japan. The high school entrance exam was very difficult. I could do well in English listening, but I could not do well at all in other subjects. I was very nervous during the interview. I was relieved to be able to enter a part-time high school in Kawagoe City. I thought all the teachers in Japan were very kind.

I saved money for school by working part-time. When I worked part-time as a dry-cleaner, I learned Chinese characters while writing slips of laundry for curtains delivered from hospitals and companies. I want to continue to live in Japan. In the future, I want to work in the car business. When I have enough money, I would like to start my own company.

S.J. [China], September 2021

I came to Japan when I was 13 years old. I learned about the children's club at the city office. When I became a senior in high school, I considered a lot about my career for the future. I went to an information session at Kawagoe Doctors and Nursing College and decided to take the entrance exam.

The teachers at the children's club worked very hard to think about and research the entrance exam. They had me practice my essay many times, and also practiced my interview. I bought a book of general knowledge questions and studied on my own. And I passed the exam.

I am sure that from now on, there will be some difficulties and troubles with practical training and the national examinations in two years to come. Whenever that happens, I know I can always consult with the children's club. For me, the children's club is a reassuring place.

S.R. [Philippines], May 2021

When I first came to Japan, I did not go to school because I did not understand any Japanese and going to school was painful. But thanks to the teachers at the children's club, I gradually began to understand Japanese and my way of thinking changed, and I began to think positively, that if I don't work hard, I will be the one who will have a hard time, so I have to do my best.

In high school, I consulted my problems as head of the badminton club and class problems with my teachers. They also helped me with choosing a school and submitting paperwork after graduation. Thanks to them, I am now able to attend a professional school for ground staff.

Although I had a lot of difficulties, I became more confident in my Japanese language and daily life. I want to improve my Japanese more, and one day I would like to return my favor by being able to teach at the children's club.



P. M. F. [Philippines], May 2022

I was born to a Japanese father and a Filipino mother.

When I was eight years old, I transferred to a Japanese school. I was anxious, but I still remember that my classmates were kind to me. Studying was hard. I did not attend regular classes and studied individually. The teachers and volunteers at FICEC taught me at that time.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I passed JLPT N1. Since I was in Philippines, it was Japanese anime and manga that motivated me to study Japanese. Manga is a great way for foreigners to learn Japanese. I am now able to work in Japan thanks to the teachers and volunteers at the children's club. Thank you very much.

Festival information for September and October

FICEC will also participate in the festival

◆ September 7, Miyoshi Festival

Place: Miyoshi Town Sports Park, around Miyoshi Town Hall

There will be plenty of dancing, drumming, musical performances, dancing and other events, as well as snack counter.

At the end of the festival, there will be a firework.

◆ September 8, Nishi Kominkan Festival

Place: Kami-fukuoka-nishi Community Center
There will be singing and dancing by groups active in the community center, snack counters, and exhibitions and experience corners.

◆ October 6

Fujimi International Exchange Forum

Place: Fujimi Civic Cultural Hall Kirari Fujimi

◆ Multi-National Talk

Let's talk about life in Japan and multiculturalism

◆ Attractions

Cheerleading, singing, hula dancing, drum performance

◆ Experience,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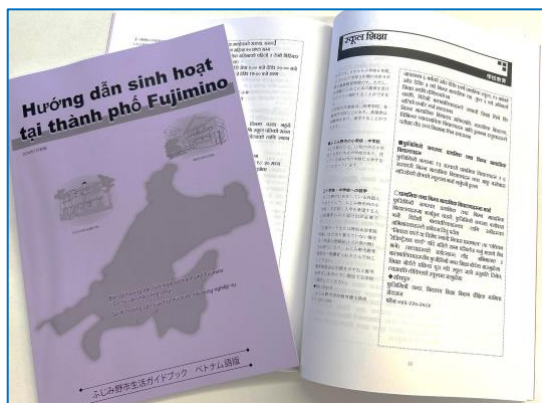
Trying on ethnic costumes, trying on police uniforms and mini motorcycle, writing in languages of the world, drumming, easy Japanese display, world tea tasting

Let's go to some fall festivals!

- October 19, 20 Kawagoe Festival <https://www.kawagoematsuri.jp/>
- October 26 Fujimi Furusato Festival Place: Around Fujimi City Hall
- October 27 International Fair Place: Saitama Super Are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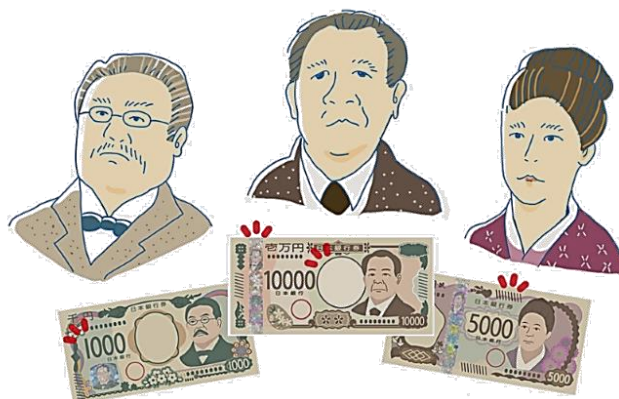
Fujimino City Living Guide



Translated in following 8 languages:
Easy Japanese, English, Chinese, Korean, Tagalog, Portuguese, Vietnamese, and Nepalese.
We give it to you for free.

10,000 yen, 5,000 yen, 1,000 yen
The bill has been renewed

Beware of scams!
Old bills can be still used!





从ふじみの国際交流中心毕业的孩子们

每周六，许多祖籍国外的孩子们都会来到 FICEC 的国际儿童俱乐部，把 FICEC 当做第二所学校与家园，在这里学习并度过时光。让我们来听一听 FICEC 毕业生们的心声吧。

原文摘自于 FICEC 的期刊《你好！朋友 (Hello Friends)》。

2020 年 5 月刊 U. M. [巴基斯坦]。

我是在巴基斯坦初中毕业后，16 岁时来到日本生活的。

日本是一个干净安全的国家。与巴基斯坦不同，在日本的街上看不到成年人打架。日本高中的入学考试非常难，虽然我的英语听力不错，但其他科目完全不行，面试时非常紧张。当知道考上了川越市的定时制高中时，我大大地松了一口气。我觉得日本的老师都很和蔼可亲。

我靠打工攒学费。在窗帘清洁店里上班时，我通过写医院和公司的洗衣单时学会了汉字。

将来我打算在日本生活并想从事汽车行业。勤奋工作，积累了足够的资金后，我想自己创业。

2021 年 5 月刊 S. R. [菲律宾]。

刚来日本的时候，我完全不懂日语，上学很痛苦，所以经常旷课。多亏了儿童俱乐部的老师们，我慢慢地开始懂日语，想法也发生了变化，开始正向思考。如果不努力，最后吃亏的一定是自己，所以要尽自己最大的努力。

高中时，我还担任了羽毛球队队长。在队里和班级里遇到困难时向 FICEC 的老师们请教。他们给予我很多帮助，比如高中毕业后的选择学校、材料的提交等。多亏了他们，我才能够进入空港地勤专门学校学习。

虽然遇到了很多困难，但我对自己的日语和日常生活更加有了自信。我想进一步提高自己的日语水平，希望有朝一日能够教导参加俱乐部活动的孩子们，以报答老师们对我的帮助。



2021 年 9 月刊 S. J. [中国]。

我 13 岁时来到日本。市政府的工作人员向我推荐了儿童俱乐部。

高三时，我认真考虑自己的前途，参加了川越医生护士专门学校的说明会并决定报考。儿童俱乐部的老师们帮我查学校，给予了很大的支持，多次陪我练习写作文及面试。对于常识题，我买了书自学。最终，我通过了考试。

我相信在今后的医院实习，两年后的国家考试中，我一定还会遇到各种困难和问题。我觉得我可以随时向儿童俱乐部的老师们请教。对我来说，儿童俱乐部就是我坚强的后盾。

2022 年 5 月刊 P. M. F. [菲律宾]。

我的父亲是日本人，母亲是菲律宾人。八岁时，我转学来到一所日本学校。当时的我很不安，但班里的同学们对我的友善至今历历在目。学习很难。我没有和同学们一起在大班上课，而是和 FICEC 的老师们，志愿者一起单独学习。

上大学时，我通过了日语能力考试 N1。在菲律宾时，日本的动画片和漫画激发了我学习日语的兴趣和动力，推荐外国人学习日语时可以多看看动漫。

我现在能在日本工作，全靠儿童俱乐部的老师们和志愿者老师们。非常感谢你们的帮助。

9月、10月の节日活动信息

FICEC 也参加

◆9/7 『みよしまつり』

地点/三芳町运动公园、三芳町役场周围

有许多活动和各种义卖，包括舞蹈、日式大鼓、音乐表演。

节日的最后亮点是烟火表演。

◆9/8 『西公民館まつり』

地点/上福岡西公民馆

在公民馆活动的团体的歌舞表演、义卖、展览和动手角。

◆10/6

『富士見市国際交流フォーラム』

地点/富士見市市民文化会馆キラリ☆ふじみ

● 国际漫谈

畅谈日本的生活和多文化

● 特别演出

啦啦队表演、唱歌表演、草裙舞、日式大鼓

● 体验与展览

各国民族服装试穿、警服试穿、小型摩托警车试骑、试写各国语言、日式大鼓体验、展示简单易懂的日语、品尝各国特产茶叶

出门去逛逛秋天的节日活动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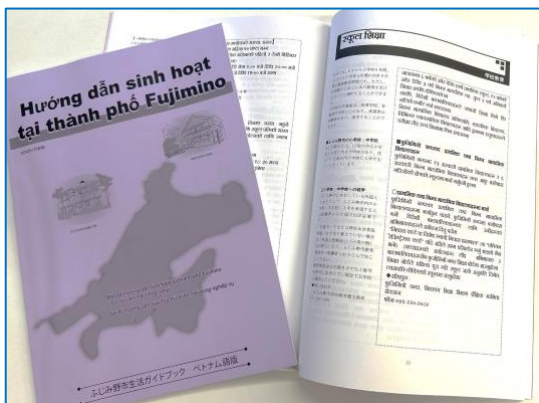
■ 10/19,20 川越祭り <https://www.kawagoematsuri.jp/>

■ 10/26 富士見ふるさと祭り 地点/富士見市市役所周边

■ 10/27 国際フェア 2024 地点/さいたまスーパーアリーナ



ふじみ野市「生活ガイド」



8 国语言的翻译版本。

『简单易懂的日文版、英文版、中文版、韩文版、他加禄语版、葡萄牙语版、越南语版、尼泊尔语版』免费颁发。

10000 日元、5000 日元、1000 日元 新的纸币已上市

警惕诈骗！ 旧纸币还能用！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를 졸업한 어린이들

매주 토요일이 되면 많은 외국계통의 어린이들이 FICEC의 국제 어린이클럽에 옵니다. 제 2의 학교처럼 ficec에서 배우고 많은 시간을 여기에서 보내고 독립해 나간 아이들에게 추억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 원고는 FICEC의 기관지 「헬로우 프렌즈」에서 발췌했습니다.

2020년 5월호 U·M [파키스탄]

일본에서 살게 된 것은 파키스탄의 중학교를 졸업한 16세 때였습니다. 일본은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리에서 싸우는 어른들을 볼 수 없었던 것은 파키스탄과 달랐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시험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영어 듣기는 할 수 있었지만, 다른 과목들은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 때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겨우 카와고에시에 있는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일본 선생님들은 모두 친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비용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았습니다. 커튼 세탁일을 하면서 병원이나 회사에서 오는 세탁물의 전표를 작성하면서 한자를 익혔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에서 살 계획입니다. 나중에 자동차에 관련 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이 모이면 내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2021년 5월호 S·R [필리핀]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일본어를 전혀 몰라서 학교에 가는 것이 고통스러워 자주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클럽 선생님 덕분에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생각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고생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배드민턴부 부장으로서의 고민이나 반 문제도 선생님께 상담했습니다. 또한, 졸업 후의 학교 선택이나 서류 제출 등 다양한 일도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그라운드 스태프 전문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일본어와 일상생활에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어를 더 잘 할 수 있게 되어 언젠가 저도 클럽에 오는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2021년 9월호 S·J [중국]

13세 때 일본에 왔습니다. 어린이 클럽은 시청 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여러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카와고에의사간호 전문학교 설명회에 가서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이 클럽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생각해 주시고 조사해 주셨습니다. 작문 연습도 여러 번 하고, 면접 연습도 도와주셨습니다. 일반 상식 문제는 책을 사서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앞으로 실습이나 2년 후의 국가 시험 등에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에는 언제든지 어린이 클럽에 상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어린이 클럽은 든든한 곳입니다.

2022년 5월호 P·M·F [필리핀]

저는 일본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8세 때 일본 학교로 전학왔을 때 불안했지만, 같은 반 친구들이 친절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힘들었습니다. 일반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때 가르쳐 준 분들이 FICEC의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일본어 능력 시험 N1에 합격했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일본어 공부의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은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였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어를 배우는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린이클럽의 선생님들과 자원봉사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9 월, 10 월의 마츠리 정보

FICEC 도 참가합니다

◆ 9/7 『미요시마츠리』

장소/미요시마치운동공원,
미요시마치야쿠바 주변

봉오도리, 타이코, 하야시, 댄스등의
이벤트와 모의점등 많이 준비합니다.
마츠리의 마지막은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 9/8 『서공민관마츠리』

장소/카미후쿠오카서공민관

공민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민요와
봉오도리, 모의점, 전시·체험코너가
있습니다.

◆ 10/6

『후지미시국제교류포럼』

장소/후지미시민문화회관 키라리☆후지미

● 시끌벅적 세상이야기

일본에서의 생활이나 다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 어트랙션

치어리딩, 노래, 홀라댄스, 타이코연주

● 체험·전시

민족의상의 시착, 경찰관 제복시착과
미니휠색오토바이 시승, 세계의 글자로
써봅시다, 쉬운 일본어 전시, 세계의 차 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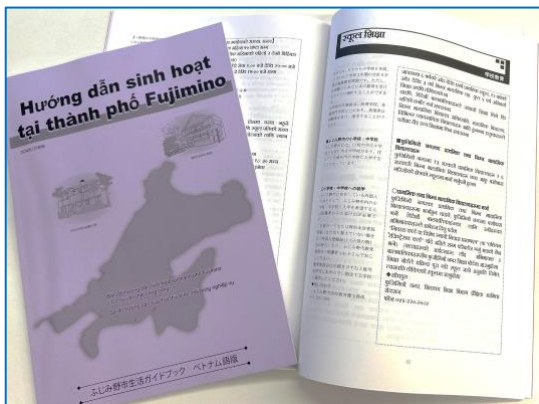
가을 마츠리에도 놀러 가 봅시다!

■ 10/19,20 카와고에마츠리 <https://www.kawagoematsuri.jp/>

■ 10/26 후지미후루사토마츠리 장소/후지미시야쿠소 주변

■ 10/27 국제페아 2024 장소/사이타마슈퍼아리나

후지미노시 「생활가이드」



8 개 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쉬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네팔어』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10000 엔, 5000 엔, 1000 엔
지폐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사기 주의!
기존 지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rianças formadas no Fujimino Kokusai Koryu Center

Aos sábados, mundo de crianças estrangeiras vêm no Kokusai Kodomo Curabu do FICEC. Perguntamos às crianças que estudaram e gozaram bom tempo, sobre suas lembranças. Esses manuscritos são extraídos do boletim do FICEC “Hello Friend” publicados(2020~2022).

Maio/2020 U • M [Paquistão]

Quando tinha 16 anos de idade ao formar ginásio no Paquistão, passei a morar no Japão. Achei Japão um país seguro e bonito. É diferente do Paquistão. Não vê adultos brigando no centro da cidade. O xame vetibular ao colégio foi muito difícil. No “listening” de inglês fui bem. Mas outras matérias fui mal. Fiquei muito tensa na entrevista. Com muito custo entrei no colégio noturno de Kawagoe. E fiquei aliviado. Achei todos professores muito amáveis. Juntei economias fazendo bico para pagar gastos escolares. Aprendi kanjis preenchendo fatura das roupas enviadas pelo hospital e empresa. Daqui em diante, pretendo continuar viver no Japão. No future, quero trabalhar no serviço ligado ao carro. Quero ter minha empresa.

Maio/2021 S • R [Filipinas]

Assim que cheguei no Japão, era sofrimento ir a escola, porque não entendia nada de japonês. Mas graças ao professor de Kodomo Curabu, aos poucos comecei a entender. Meu modo de pensar também foi mudando. Comecei tomar atitude positiva, esforçar para próprio bem. No colégio como chefe do clube de badminton, consultei professor sobre próprios problemas e da classe. Pedi muitas ajudas também na escolha da escola e apresentação de documentos. Graças ao professor consegui frequentar “Gurando staff”. Sofri bastante. Mas adquiri confiança no meu japonês e levar a vida de dia-a-dia. Quero aperfeiçoar meu japonês e algum dia, quero ensinar japonês às crianças que frequentam classe de japonês para retribuir ao benfeitor.



Setembro/2021 S • J [China]

Vim ao Japão com 13 anos de idade. Tomei conhecimento do Kodomo Curabu na prefeitura. No terceiranista do colégio, pensei muito no meu futuro. Fui à reunião de explicação a Kawagoe Ishi/Kango Senmongakko e resolvi fazer o exame de admissão. Os professores ajudaram pesquisando e pensando muito. Fiz vários exercícios de redação e treinamento de entrevista. Estudei questões de conhecimentos gerais adquirindo livros. E fui aprovada. Daqui para frente, poderá ocorrer muitos problemas com a prática e exame do estado daqui a 2 anos. Nesses tempos, sempre poderei contar com o Kodomo Curabu, penso eu. Para mim, Kodomo Curabu é um lugar que me dá força.

Maio/2022 P • M • F [Filipinas]

Sou filha de pai japonês e mãe Filipina. Com 8 anos de idade fui incorporada na escola japonesa. Estava apreensiva. Eu me lembro até hoje que as crianças da classe eram muito amáveis. O estudo era difícil. Não participava das aulas na classe matriculada. Tomava aulas orientado pelos mestres do FICEC e de voluntários. Fui aprovado no exame de proficiência em japonês quando era universitária. O que motivou o estudo de japonês foi o desenho animado japonês. Acho um meio de aprender japonês p/estrangeiro. Hoje consigo dedicar ao trabalho graças aos mestres do Kodomo Curabu e voluntários. Estou muito grata!

Informação sobre festival de setembro e outubro

FICEC PARTICIPARÁ TAMBÉM

◆ 7/9 『Miyoshimatsuri』

Local: Miyoshimachi Undo Koen, Periferia de Miyoshimachi Yakuba

Variados eventos como dança, tambor, acompanhamento musical, barracas. No final do festival haverá "Uchiagehanabi".

◆ 8/9 [Nishi Kominkan Matsuri]

Local: Kamifukuoka Nishi Kominkan

Há canção e dança da corporação em atividade no Kominkan, barracas, canto de exposição e praticar exercícios.

◆ 6/10 [Fujimi-shi Kokusai Koryu Forum]

Local: Fujimi Shimin Bunka Kaikan Kirari ☆ Fujimi

● **Waiwai Worldtalk** Conversar s/a vida no Japão e cult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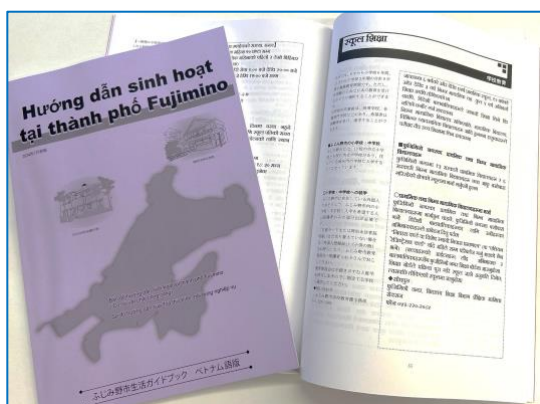
● **Atração** Cheerleading, canção, dança havaiana, exibição de tambor.

● **Experiências/Exposição** Experimentar trajes étnicos, uniforme da polícia e andar de motocicleta branca, tentar escrever palavras do mundo, experimentar tambor, exposição de japonês acessível, Tomar chá do mundo.

Vamos apreciar o festival de outono também !

- 19 e 20/10 Kawagoe Matsuri <https://www.kawagoematsuri.jp/>
- 26/10 Fujimi Furusato Matsuri Local: Periferia de Fujimi Shiyakusho
- 27/10 Feira internacional 2024 Local: Saitama Super Arena

Fujimino-shi 「Seikatsu Gai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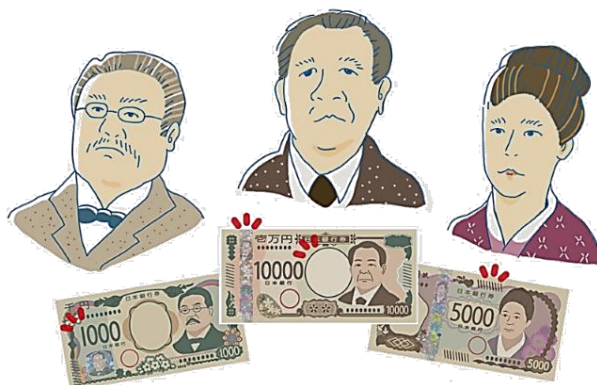
Traduzido para 8 idio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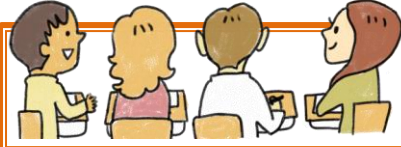
『 Japonês acessível, inglês, chinês, coreano, tagalo, português, vietnamita, nepalês. 』

Distribuição gratuita.

Renovadas as notas de 10 mil ienes, 5 mil ienes e um mil ienes.

**Tome cuidado com fraude !
Podem usar ainda notas velhas!**





Những trẻ đã tốt nghiệp trung tâm giao lưu quốc tế Fujimino

Cứ mỗi thứ 7 hàng tuần sẽ có rất nhiều trẻ em mang gốc nước ngoài đến tham gia câu lạc bộ trẻ nước ngoài tại FICEC.

Chúng tôi đã hỏi cảm nghĩ của các em đã rời khỏi FICEC- nơi mà các em đã học tập và trải qua thời gian sống như là ngôi trường thứ 2.

Các bản thảo này được trích lược từ tạp chí “Hello Friend” của FICEC.

Số tháng 5 năm 2020 U • M [Pakistan]

Tôi bắt đầu sống ở Nhật khi tôi 16 tuổi và đã tốt nghiệp trung học cơ sở ở Pakistan.

Tôi đã thấy một đất nước Nhật an toàn và rất đẹp. Một đất nước khác hoàn toàn với Pakistan khi không thấy những người lớn cãi nhau trên phố. Kỳ thi vào trung học phổ thông rất khó. Dù tôi có thể làm bài kiểm tra tiếng Anh, nhưng các môn khác tôi hoàn toàn không thể làm được. Tôi đã rất hồi hộp khi phỏng vấn. Và tôi thực sự thờ phào khi có thể đi học trường cấp 3 theo chế độ bán thời gian ở thành phố Kawagoe. Tôi thấy thầy cô rất hiền hòa.

Học phí đã được tiết kiệm từ công việc làm bán thời gian. Khi tôi làm việc giặt là rèm cửa, tôi đã vừa viết bưu biên nhận đồ giặt được gửi tới từ bệnh viện, công ty và vừa nhớ chữ kanji.

Tôi có dự định sẽ tiếp tục sống ở Nhật. Tương lai tôi mong muốn làm công việc liên quan đến ngành ô tô. Nếu làm việc nhiều và để dành được nhiều tiền, tôi muốn thành lập công ty của riêng mình.

Số tháng 9 năm 2021 S • J [Trung Quốc]

Tôi đến Nhật khi 13 tuổi, tôi biết đến câu lạc bộ trẻ em nhờ được người của Ủy ban thành phố giới thiệu.

Khi chuẩn bị lên cấp 3, tôi đã suy nghĩ rất nhiều về con đường phía trước của bản thân. Tôi đã tham gia buổi giới thiệu của trường nghề y tá y sĩ Kawagoe, và tham gia kỳ thi.

Thầy cô ở câu lạc bộ đã rất nhiệt tình suy nghĩ và tìm kiếm giúp tôi. Còn chỉ cho tôi luyện tập viết bài luận, luyện tập trả lời phỏng vấn rất nhiều lần. Tôi đã mua sách và tự học các câu hỏi thông thường. Và tôi đã đậu.

Tôi nghĩ rằng sẽ còn rất nhiều vất vả, khó khăn như thực hành hay phải tham gia kỳ thi quốc gia sau 2 năm nữa. Nhưng tôi nghĩ rằng tôi sẽ có thể hồi ở câu lạc bộ trẻ em bất cứ khi nào. Đối với bản thân tôi, thì câu lạc bộ là nơi làm tôi vững tâm.

Số tháng 5 năm 2021 S • R [Philippin]

Khoảng thời gian đầu sau khi tới Nhật, vì tôi không biết tiếng Nhật nên việc đi tới trường rất khổ sở, và tôi thường xuyên nghỉ học. Nhưng nhờ các thầy cô ở câu lạc bộ trẻ, tôi đã hiểu từng chút một, rồi tôi thay đổi đổi cách suy nghĩ của bản thân, rằng nếu mình không nỗ lực thì người khổ sở là chính mình, và tôi phải cố gắng tiến về phía trước.

Tôi đã xin lời khuyên của thầy cô về những vấn đề khó khăn ở lớp học, hay những khúc mắc của đội trưởng câu lạc bộ cầu lông trong trường phổ thông. Hơn nữa tôi còn được thầy cô hỗ trợ rất nhiều như chọn trường sau khi tốt nghiệp, hay nộp hồ sơ...Nhờ vậy mà tôi đã chọn học tại trường dạy nghề nhân viên mặt đất phục vụ chuyến bay.

Tôi đã rất khổ sở, nhưng giờ đây tôi đã tự tin về tiếng Nhật cũng như trong đời sống sinh hoạt hàng ngày. Tôi sẽ cố gắng giỏi tiếng Nhật hơn nữa, đến lúc nào đó tôi có thể chỉ dẫn cho những trẻ đến câu lạc bộ, để trả ơn cho thầy cô đã dạy dỗ giúp đỡ tôi.



Số tháng 5 năm 2022 P • M • F [Philippin]

Tôi là con lai được sinh ra giữa bố người Nhật và mẹ người Philippin.

Khi 8 tuổi tôi đã nhập học vào trường ở Nhật, tôi đã rất lo lắng, nhưng tôi vẫn nhớ sự tốt bụng của các bạn trong câu lạc bộ trẻ em. Việc học quả thật vất vả. Tôi không tham gia vào giờ học thông thường, mà được học riêng. Khi đó, người chỉ dạy tôi là các thầy cô ở FICEC và những tình nguyện viên. Tôi đã đậu chứng chỉ tiếng Nhật N1 khi là sinh viên đại học. Tôi có niềm hứng thú học tiếng Nhật khi ở Philippin là nhờ vào truyện tranh và phim hoạt hình. Tôi khuyên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nên xem nếu muốn nhớ tiếng Nhật. Hiện tại tôi có thể làm việc ở Nhật là nhờ vào thầy cô ở câu lạc bộ trẻ em và các tình nguyện viên đã giúp đỡ. Thật lòng xin cảm ơn!

Thông tin lễ hội tháng 9, tháng 10

FICEC cũng tham gia

◆ Ngày 7/9 『Lễ hội Miyoshi matsuri』

Địa điểm/Công viên thể thao Miyoshicho, xung quanh ủy ban Miyoshicho

Có nhiều các sự kiện được tổ chức như múa truyền thống và trống, Hayashi, nhảy và các hàng quán tạm.

Cuối lễ hội có bắn pháo hoa.

◆ Ngày 8/9 『Lễ hội Nishikominkan matsuri』

Địa điểm/Kamifukuoka Nishikominkan

Có sự kiện được tổ chức như hát, múa truyền thống, các hàng quán tạm, triển lãm, các quầy trải nghiệm của đoàn thể hoạt động tại kominkan.

◆ Ngày 6/10

『Diễn đàn giao lưu quốc tế thành phố Fujimi shi』

Địa điểm/Hội quán văn hóa thị dân thành phố Fujimi Kirari Fujimi.

● Nói chuyện thế giới

Nói về cuộc sống ở Nhật và đa văn hóa

● Sức hấp dẫn

Cổ động, hát, nhảy hula, biểu diễn đánh trống.

● Trải nghiệm • triển lãm

Mặc thử trang phục dân tộc, mặc thử đồng phục và ngồi thử xe máy mini cảnh sát, thử viết bằng ngôn ngữ của thế giới, trải nghiệm đánh trống, triển lãm tiếng Nhật giản đơn, thưởng thức uống trà của thế giới, lễ hội serbian, và giới thiệu triển lãm hoạt động của đoàn thể liên quan đến giao lưu quốc tế.



Hãy thử đến tham dự cả lễ hội mùa thu nh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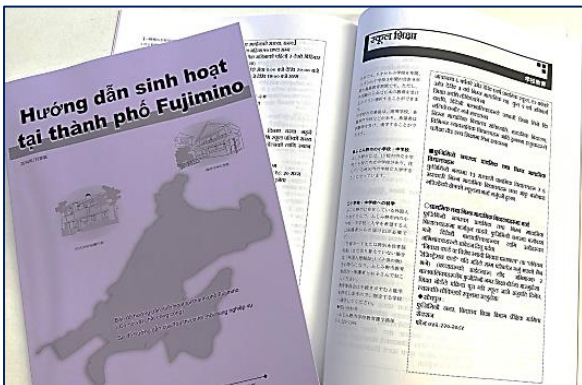
■ Lễ hội Kawwagoe ngày 19,20/10 <https://www.kawagoematsuri.jp/>

■ Lễ hội Fujimi Furusato ngày 26/10

Địa điểm/ khu vực xung quanh Ủy ban thành phố Fujimi

■ Hội chợ quốc tế 2024 ngày 27/10 Địa điểm/ Saitama Super Arena

Hướng dẫn sinh hoạt tại thành phố Fujimino



Đã dịch bằng 8 ngôn ngữ

『Tiếng Nhật giản đơn, tiếng Anh, tiếng Trung Quốc, tiếng Hàn Quốc, tiếng Philippin, tiếng Bồ Đào Nha, tiếng Việt và tiếng Nepal』 được phát miễn phí.

Đã phát hành tiền giấy mới 10000 yên, 5000 yên, 1000 yên

**Chú ý lừa đảo !
Tiền giấy cũ vẫn sử dụng được!**





Mga batang lumaki na at napangalagaan ng Fujimino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Center

Tuwing Sabado, mga batang anak ng dayuhang magulang ay pumupunta sa FICEC International Children's Club para sa pag-aaral ng Nihongo. Tinanong namin ang mga bata tungkol sa kanilang karanasan at alaala sa panahong pumupunta sila sa FICEC bilang pangalawang eskuwelahan at lugar para sa mga pagtitipon. Ang pag-uulat ng mga bata ay kinuha sa FICEC journal "Hello Friends."

U.M. [Pakistan], May 2020

16 taong gulang ako nang magtapos sa junior high school sa Pakistan at pumunta dito sa Japan. Sa tingin ko ang Japan ay isang ligtas at malinis na bansa. Wala akong nakikitang mga matatanda na nag-aaway sa mga kalye. Nahirapan ako ng kumuha ng entrance exam sa high school. Nakuha ko ang parte ng listening sa Ingles, ngunit hindi ko maintindihan ang ibang subjects. Kinabahan din ako sa interview. Buti na lang at nakapasok ako sa isang evening high school sa Kawagoe City. Sa tingin ko ay mababait ang mga teachers sa Japan. Nag-ipon ako ng pera para sa panggastos sa eskuwela sa pagtatrabaho nang part-time. Nang magtrabaho ako ng part-time sa isang dry-cleaning, natutuhan ko ang mga Japanese kanji characters habang nagsusulat ng mga slip ng laundry ng mga kurtina mula sa mga ospital at kumpanya. Balak kong patuloy na manirahan sa Japan. Sa hinaharap, gusto kong magtrabaho sa kumpanya ng sasakyan. At pag may sapat na akong pera, gusto kong magtayo ng sariling kumpanya.

S.J. [China], September 2021

13 taong gulang ako ng dumating dito sa Japan. Nalaman ko ang tungkol sa FICEC children's club sa city hall. Sa ika-3 taon sa high school, marami akong pinag-isipan tungkol sa aking karera para sa hinaharap. Nagpunta ako sa isang information session sa Kawagoe Doctors and Nursing College at nagpasya akong kumuha ng entrance exam. Nagsikap nang husto ang mga guro sa children's club na matulungan ako sa paghahanda para sa entrance exam. Maraming beses nila akong pinapraktis sa aking sanaysay at gayundin sa aking interbyu. Bumili ako ng aklat ng mga tanong tungkol sa pangkalahatang kaalaman at nag-aral nang mag-isa. At naipasa ko ang exam. Sigurado ako na sa susunod na 2 taon ng pag-aaral ay magkakaroon ng mga paghihirap at problema sa praktikal na pagsasanay at sa pagkuha ng pambansang pagsusulit. Ngunit alam kong maari akong magkonsulta sa children's club. Para sa akin, ang children's club ay isang lugar na madudulugan at nagpapalakas ng aking loob.

S.R. [Philippines], May 2021

Noong una kong dating sa Japan, hindi ko talaga maintindihan ang Nihongo, kaya nahirapan akong pumasok sa paaralan at madalas na lumiban sa klase. Pero salamat sa mga guro sa children's club, unti unti kong naunawaan ang Nihongo at nagbago ang aking pakiramdam at nagsimula akong mag-isip ng positibo, na kung hindi ako magsisikap, ako din ang mahihirapan, kaya kailangan kong gawin ang lahat ng makakaya ko. Noong high school, kinunsulta ko ang aking guro sa FICEC tungkol sa aking alalahanin bilang pinuno ng badminton club at mga problema sa klase. Tinulungan din nila ako sa pagpili ng paaralan at pagsumite ng mga dokumento pagkatapos ng graduation. Dahil doon, nakapag-aral ako sa Ground Staff Vocational School. Bagama't nagkaroon ako ng maraming problema, nagkaroon ako ng tiwala sa sarili at sa pang-araw-araw na buhay. Nais kong pagbutihin ang aking Nihongo at balang araw ay makapagturo sa mga bata sa children's club, upang masuklian ko ang kanilang kabutihan.



P. M. F. [Philippines], May 2022

Ang tatay ko ay isang Hapon at ang nanay ko ay Pilipina. Noong walong taong gulang ako, inilipat ako sa isang paaralan sa Japan. Parati akong kinakabahan noon pero naaalala ko na mabait sa akin ang mga kaklase ko. Nahirapan ako sa pag-aaral. Madalas ay hindi ako pumapasok sa klase at nag-aaral nang mag-isa. Ang mga guro at volunteers sa FICEC ang nagturo sa akin noong panahong iyon. Noong pumapasok ako sa kolehiyo, pumasa ako sa JLPT N1. Dahil nasa Pilipinas ako, Japanese anime at manga ang nag-udyok sa akin na mag-aral ng Nihongo. Ang manga ay isang mahusay na paraan para sa mga dayuhan upang matuto ng wikang Hapon. Nagtatrabaho na ako ngayon dito sa Japan. Nagpapasalamat ako sa mga guro at volunteers sa children's club. Maraming salamat po.

Mga gaganaping Festival sa buwan ng Setyembre at Oktubre

Kasali din ang FICEC sa mga festival

◆ Setyembre 7, Miyoshi Festival

Lugar: Miyoshi Town Sports Park, malapit sa Miyoshi Town Hall
 May programa ng mga pagsasayaw, pagtugtog ng drum, pang-musikang pagtatanghal at iba pa, at marami ding mabibilhang food stalls. Sa pagtatapos ng festival ay magkakaroon ng fireworks display.

◆ Setyembre 8, Nishi Kouminkan Festival

Lugar: Kamifukuoka nishi kouminkan
 May programa ng kantahan at pagsasayaw ng mga aktibong grupo sa community center, iba't ibang snacks na mabibili sa food stalls, at may exhibition corner na masasalihan.

◆ Oktubre 6

Fujimi City Int'l Exchange Forum

Lugar: Fujimi Civic Cultural Hall Kirari Fujimi City

● Pag-uusap tungkol sa pamumuhay sa Japan at kultura ng ibang bansa

Mga kuru-kuro ukol sa pamumuhay sa Japan at mga banyagang kultura ng iba'ibang bansa

● Programa at mga atraksyon

Pagsasayaw ng cheerleaders' group, kantahan, sayaw ng hula, pagtatanghal ng Japanese drum at iba 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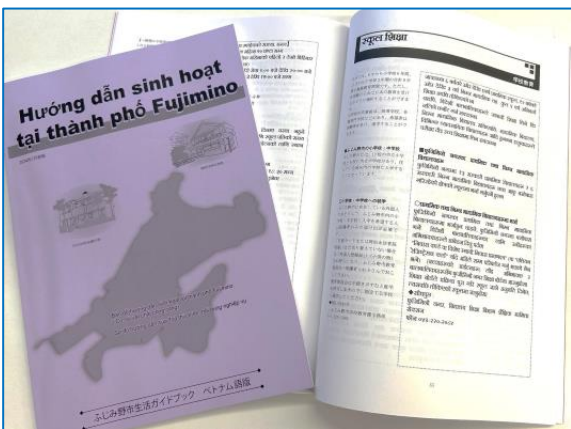
● Karanasan /Eksibisyon

Pagsusuot ng tradisyonal na damit, uniporme ng pulis, pag-angkas sa mini motorbike, pagsusulat ng mga banyagang letra, pagpapalo ng drum, simpleng Japanese exhibit, at pag-inom ng mga banyagang tsaa.

Sumali din tayo sa mga festival ngayong taglagas!

- Oktubre 19 ~ 20 Kawagoe Festival <https://www.kawagoematsuri.jp/>
- Oktubre 26 Fujimi Furusato Festival Lugar: sa labas ng Fujimi City Hall
- Oktubre 27 International Fair Lugar: Saitama Super Are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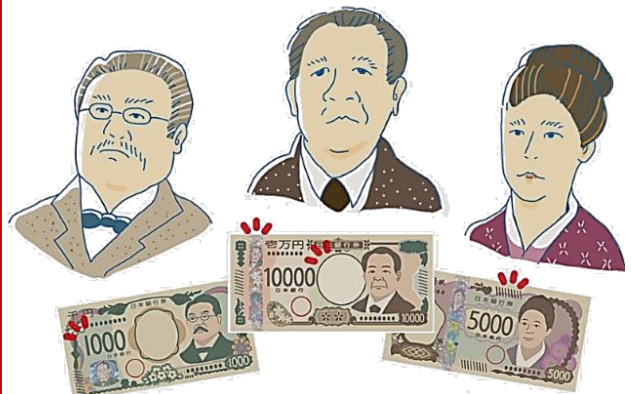
Fujimino City
 [Gabay sa pamumuhay]



Nakasalin sa 8 mga wika:
 Simpleng Japanese, English, Chinese, Korean, Tagalog, Portuguese, Vietnamese, at Nepalese.
 Libreng ipinamamahagi.

Pagbabago ng 10,000 yen,
 5,000 yen, at 1,000 yen

Mag-ingat sa mga pangloloko!
 Ang lumang pera ay magagamit pa rin!





ふじみの国際交流センターを卒業した子どもたち

毎週土曜日になると多くの外国ルーツの子どもたちが FICEC の国際子どもクラブにやってきます。第 2 の学校のように ficec で学び、居場所として時を過ごして巣立っていった子どもたちに思い出を聞きました。

この原稿は FICEC の機関誌「ハローフレンズ」から抜粋しました。

2020 年 5 月号 U・M [パキスタン]

日本に住むことになったのは、パキスタンの中学校を卒業した 16 歳の時だった。日本は安全できれいな国だと思った。街の中で、けんかしている大人を見かけないのはパキスタンと違う。高校の入学試験はとても難しかった。英語のリスニングはできたけど、その他の教科は全くできなかった。面接の時はとても緊張した。やっと川越市にある定時制高校に進学することが出来てほっとした。日本の先生はみんな優しいと思った。学校の費用はアルバイトをして貯めた。カーテンのクリーニングの仕事をした時、病院や会社から届く洗濯物の伝票を書きながら漢字を覚えた。これからも日本に住むつもりだ。将来は、車関係の仕事をしたと思っている。たくさん働いてお金がたまったら、自分の会社を作りたい。

2021 年 5 月号 S・R [フィリピン]

来日してすぐの頃は、日本語が全く分からないので学校に行くことが苦痛でよく休んでいました。でも子どもクラブの先生のおかげで、少しずつ理解できるようになり、自分の考え方も変わってきて、努力しないと苦労するのは自分だから、頑張らないといけないなど前向きに考え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高校ではバドミントン部の部長としての悩みやクラスの問題も先生に相談しました。また、卒業後の学校選びや書類の提出など、様々な事を助けてもらいました。そのおかげで、グランドスタッフの専門学校に通え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たくさん苦労はしたけれど、日本語や日常生活にも自信が持てるようになりました。もっと日本語を上達させて、いつか私もクラブに通う子ども達を教えられるようになって、今までの恩返しを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2021 年 9 月号 S・J [中国]

13 歳の時、日本に来ました。子どもクラブのことは、市役所の人から教えてくれました。高 3 になったとき、私は自分の進路についていろいろ考えました。川越医師看護専門学校の説明会に行き、受験をすることにしました。子どもクラブの先生たちが一生懸命考えてくれたり調べてくれたりしました。作文の練習を何回もして、面接の練習もしてもらいました。一般常識の問題は、本を買って自分で勉強しました。そして合格しました。これから、実習や、2 年後の国家試験などで、大変なことや困ったことが必ず起きると思います。そんな時はいつでも子どもクラブに相談できると思っています。私にとって子どもクラブは心強い場所です。

2022 年 5 月号 P・M・F [フィリピン]

私は日本人の父とフィリピン人の母の間に生まれました。8 歳の時、日本の学校に編入し、不安でしたが、クラスの子たちは優しかったのを今でも覚えています。勉強は大変でした。通常の授業には参加せず、個別で勉強していました。その時に教えてくれたのが FICEC の先生やボランティアの方々でした。大学生のころ、日本語能力試験 N1 に合格しました。フィリピンにいる時から日本語の勉強のモチベーションになったのは日本のアニメと漫画でした。外国人が日本語を覚えるにはお勧めです。現在、日本で仕事ができているのは子どもクラブの先生やボランティアの先生方のおかげ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9月、10月のお祭り情報

FICEC も参加します

◆9/7 『みよしまつり』

場所/三芳町運動公園、三芳町役場周辺

踊りや太鼓、囃子、ダンスなどのイベントや模擬店など盛りだくさん。

まつりの最後は打ち上げ花火があがります。

◆9/8 『西公民館まつり』

場所/上福岡西公民館

公民館で活動している団体の唄や踊り、模擬店、展示・体験コーナーがあります。

◆10/6

『富士見市国際交流フォーラム』

場所/富士見市民文化会館キラリ☆ふじみ

●わいわいワールドトーク

日本での暮らしや多文化について話そう

●アトラクション

チアリーディング、歌、フラダンス、太鼓の演奏

●体験・展示

民族衣装の試着、警察官の制服試着とミニ白バイの試乗、世界の言葉で書いてみよう、太鼓の体験、やさしい日本語展示、世界のお茶試飲

秋のお祭りにも出かけてみよ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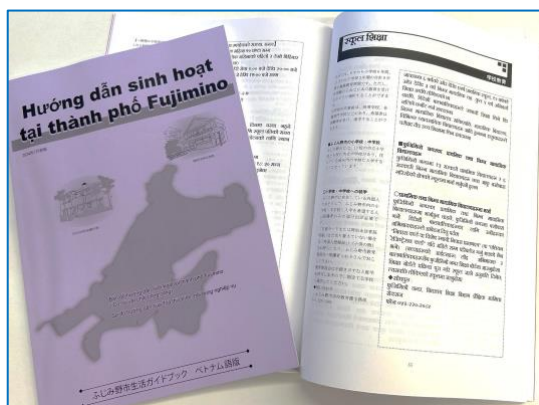
■10/19,20 川越祭り <https://www.kawagoematsuri.jp/>

■10/26 富士見ふるさと祭り 場所/富士見市役所周辺

■10/27 国際フェア 2024 場所/さいたまスーパーアリーナ



ふじみ野市「生活ガイ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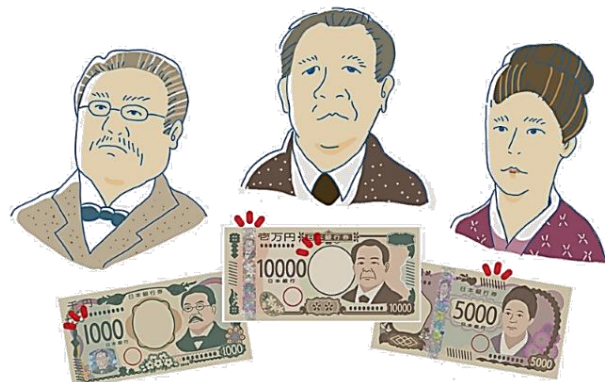


8カ国語で翻訳しました。

『やさしい日本語、英語、中国語、韓国語、タガログ語、ポルトガル語、ベトナム語、ネパール語』無料で差し上げています。

10000円、5000円、1000円
お札が新しくなりました

詐欺に注意！
古いお札も、まだ使えます！



外国人生活相談 「いつでも きがるに きてください」

Foreign resident advisory center

049-269-6450

げつようび きんようび
Monday - Friday 10:00 - 16:00

日本語教室 にほんごきょうしつ

Japanese Language Class

げつようび と もくようび

Monday and Thursday 10:00 - 11:30



Tư vấn sinh hoạt

Thứ 2~ Thứ 6 10:00 - 16:00

Lớp học tiếng Nhật

Thứ 2 và thứ 5 10:00 - 11:30

Foreign resident advisory center

Lunes - Biyernes 10:00 - 16:00

Japanese Language Class

Lunes at Huwebes 10:00 - 11:30

外国人生活咨询

星期一—星期五 10:00 - 16:00

日本語教室

星期一和星期四 10:00 - 11:30

Consulta p/estrangeiros sobre cotidiano

Segunda - Sexta 10:00 - 16:00

Aula de Japonês

Segunda e quinta 10:00 - 11:30

외국인 생활상담

월요일 - 금요일 10:00 - 16:00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일본어교실

월요일과 목요일 10:00 - 11:30



ふじみの国際交流センター

(FUJIMINO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CENTER)

〒356-0004 埼玉県ふじみ野市上福岡 5-4-25

TEL: 049-256-4290・049-269-6450 FAX: 049-256-4291

